

‘문화세계의 창조’ 퇴보는 없다

1997-2997

1996. 12. 27 陸 敬 河

정축년 학원장 신년사



조영식 학원장

희망과 서기가 어린 정축년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경희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참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도 우리 경희는 대학개혁평가, 의·치·한의학계열 평가 등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고 또한 국제대학원 운영교로 선정됨으로써 우리의 높은 저력을 재확인함은 물론 새로운 재도약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학교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경희가족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목전에 다가와 있는 21세기는 우리에게 무한정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고 오로지 이 경쟁에서의 승자만이 희망찬 21세기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우리 경희는 '하면된다, 해내야만 한다'는

경희정신 하나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세인들이 경이(驚異)의 역사라 칭송할 정도로 눈부신 교육사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발전과 인류평화, 복리증진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60년대 우리 조국이 전후의 폐허에서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잘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온 국민의 가슴속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심어 주었고 이는 곧 사회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세우게 하고 나아가 정부차원의 새마을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70년대에 들어 눈부신 경제발전에 역비례하여 우리 사회가 날로 비인간화 되어가고 물질문명의 여파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 경희는 또 다시 혼연히 일어서서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전파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80년대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냉전대립속에서 온 인류가 인류절멸의 제3차 핵대전의 위험속에 전율할 때 우리 경희는 유인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공포케 함으로써 냉전의 벽을 허물고 희망찬 인류의 신화해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초석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90년대 들어 마약·테러·각종 범죄가 횡행하고 도덕과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며 천륜마저도 파괴되는 딱한 현실을 목도하며 다시금 도덕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제2 르네상스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온 인류에게 새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지금도 온 세계에 요원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빛나는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희망찬

인류문명 선도할 명문사학 구현

제2도약의 정신으로 노력할때

▲문명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낸 이 작품은 새해가 시작되는 1997년부터 2997년까지 1천년간의 인간의 진화를 상징시킨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1997년을 기점으로 인류의 문명이 진보될 것인지 퇴보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교과를 졸업한 육근병동문은 지난 10월 프랑스 미술전을 마치고 개인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21세기를 바라보며 제2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휘말아치는 변화와 개혁의 와중에서 다시 일어선다 서지 못하느냐에 우리 대학의 장래가 달려 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숭고한 목표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비전을 그리는 의지 하나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듯이 다시금 제2 창업의 의지로 재충전하여 총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 동북아시아를 맞아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인류문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하는 명문중의 명문, 대학중의 대학이 되는 그 보람된 대열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할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도 우리 모든 경희가족에게 큰 보람이 함께 하고 뜻 하는 바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화합하여 세계속의 명문경희 이루어 내자”
감사합니다.